

선진국·개도국 다리 댔다... 한국 외교지평 넓은 서울 G20

The JoongAng Plus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그·끝

2007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2008년 11월에 출범한 G20 정상회의는 G20국간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보호무역주의 자제를 이끌어 내어 또 다른 세계 경제 대공황을 막을 수 있었다. 그 결과 G20은 2009년 피츠버그에서 지구촌 경제 협력을 위한 '프리미어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G20가 사실상의 지구촌 유지그룹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례화된 G20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의장국(유지그룹 좌장)으로 위기 극복 이후 세계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우선 대한민국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의교 행사를 치러야 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는 32개 대표단(G20+국제기구 7+특별 초청국 5)의 고위급 인사 4600여 명과 1300여 명의 외신 기자단이 방한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상회의 이전에는 재무 장관·차관, 중앙은행 총재·부총재 회의와 세무와 회계 등 부속 회의가 국내에서 각각 2차례씩 개최해 2000여 명의 국외 참가자들이 방한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G20 관련 국제회의, 비즈니스 서밋 참가 민간 부문 주요 인사도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세계인의 이목이 쏠린 이 지구촌 유지그룹 행사를 통해 우리 역사와 전통, 사회와 문화를 세계에 제대로 알리는 한편, 우리 스스로 국격(國格)을 한 단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G20 정상회의의 기획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G20 준비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조직과 인력을 한데 모으고, 정상회의와 부속 행사 및 의전, 그리고 국내외 홍보를 위한 새로운 조직과 인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G20 준비위는 정상회의의 여전다 설정과 합의 도출을 위해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국내 행사 준비에도 착수했다. 회의시설과 숙박시설, 공항 접근성과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 정상회의의 개최지는 서울특별시로 일단 정했다. 그리고 재무 장관·차관, 중앙은행 총재·부총재 회의와 세무와 회계 등 부속 회의는 가능한 한 여러 지방에 분산 개최키로 했다.

2010년 11월 11~12일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예정된 11월에 일본 요코하마 APEC 회

서울 G20 정상회의의 홍보대사 위촉된 김연아 선수와 배우 한효주씨가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11월 1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The JoongAng Plus에서 연재 중인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시리즈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의(11월 13~14일)도 열리게 되어 있었다. 두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일부 G20 정상들의 여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회의의 연계를 최방안이 나왔다. 물론 일본 정부는 APEC 회의를 먼저 개최하기를 원했다. 우리는 지구촌 전체 경제 문제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가 지역 경제협력체 회의에 앞서 개최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런데 11월 11일은 미국의 '재향군인의 날'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전 출국이 어려웠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휴전 기념일' 행사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사전 출국이 불가능했다. 그냥 두면 G20 정상회의가 APEC 회의 이후로 밀릴 수 있었다.

마침 워싱턴에서 개최한 G20 관련 회의의 참석차 방미 중이었던 나는 백악관의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의장과 또 만났다. 서머스의 의장은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조했다. 극히 예외적인 것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주둔 미군 병사들과 함께 행사하는 방안을 건의해 보겠다고 했다. 다행히도 실제 그렇게 되었다.

이어 프랑스로 가서 장-다비드 르브르보관도 만났다. G20 정상회의의 우선 개최 논리에 동조한 르브르보관은 사르코지 대통령과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귀국 직후 르브르보관은 전화로 사르코지 대통령은 휴전기념일 행사 참석 직후에 전용기편으로 서울에 와서 12일 개최식부터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참석은 중요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의 주장대로 서울 G20 정상회의를 APEC 회의에 앞서 11~12일 개최할 수 있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밤새 비행 후 12일 오전 서울 K2 비행장에 도착해서 곧장 G20 정상회의장으로 왔다. 호 텔 체크인도 하지 않았다. G20 정상회의의 직후에는 청와대에서 한·불 정상회의를 마치고 다시 K2 비행장으로 향했다. 그다음

날 프랑스 국회 출석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부 선진국 국민과 지도자들의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에 대한 절대적 존경과 사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G20 정상회의의 의장과 정상업무 만찬 장소 선정 또한 쉽지 않았다. 우선 정상회의의 개최 후보지로는 강남 도심에 위치한 코엑스 컨벤션 센터가 처음부터 유력했다. 그러나 당시 하루 유동인구가 20~30만 명이 되고, 인근에 고층빌딩이 많아 경호상 어려움이 약점이었다. 게다가 교통혼잡과 시민 불편 야기 등 우려로 서울 외곽에 위치한 킨텍스 컨벤션 센터를 대안으로 검토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가교 역할
원조 넘어선 개도국 경제개발 역설
글로벌 금융안정장 강화도 강조
한국, 글로벌 리더십 가능성 확인**

**K컬처 토대를 닦다
대표단 4600명, 사상 최대 외교행사
박물관·미술관 활용, 우리 문화 알려
한국 국격 한단계 높이는 계기 마련**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외신 취재진이 머물며 한국의 발전상을 세계에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서울 강남지역 개최를 포기할 수 없었다. 오히려 정부는 이 기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호와 보안 역량과 자신감, 그리고 서울 시민의 성숙한 시민상을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자는 생각을 갖게 됐다. 교통혼잡과 시민불편 문제는 정부의 G20 정상회의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전혀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상환경 리셉션 겸 업무 만찬장과 정상업무인 만찬장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우리 고유의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을 외쳤다. 이와 관련해 한국 문화와 예술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은 프랑스의 문화비평가 기 소르망 생각이 났다. 한국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을 일본과는 달리 바깥세상에 제대로 알리지 못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고 항상 안타까워했다.

마침 2009년 방한 시에 국립 박물관을 둘러보고 너무 좋았다는 얘기도 생각났다. G20 준비위 간부들과 박물관에 가서 최광식

박물관장(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임)의 현장 설명도 들었다. G20 정상회의 리셉션과 만찬장은 큰 꾸밈 없이 품격있게 준비하고 정상들이 이동할 길 북쪽에는 자연스럽게 국보급 문화재 전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더 좋은 곳을 생각할 수 없었다.

G20 정상 업무인들의 만찬 장소는 관례상 정상 만찬 장소 지근거리의 별개 장소여야 했다. 그래서 이태원 소재 리움 미술관을 생각해 봤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미술관 전시 홀에서 G20 영부인 만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튿날 정상 업무인들의 창덕궁 후원 한복 패션쇼 후 가벼운 오찬 장소로 삼성동 소재 가구박물관을 택했다.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한국 특유의 생활방식과 생활공간을 볼 수 있어, 중앙박물관과 리움 미술관과 함께 G20 대표단과 취재진의 사후호평을 받았다.

대통령 특사로 미국과 중국을 다시 방문해 서머스의 의장, 중국 왕치산 부총리와 정상회의 의제에 관해 논의했다. G20에 속하지 않은 다수의 신흥 경제국·개도국(당시 192개 UN 가입국)의 성장 없이 세계 경제의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개발'을 서울 G20 여전다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왕 부총리는 전적으로 한국의 개발 의제를 지지했다.

반면 서머스의 의장은 개발 이슈는 G7 의제와 겹친다며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험에 비춰 G7의 단순한 원조 차원을 넘어 개발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자는 논리로 설득했다. 경제 개발은 글로벌 금융안정장 강화와 G20 비즈니스 서밋과 함께 3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각광을 받았다.

G20 정상회의의 폐회에 앞서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발 여전다를 G20 의제로 선정할 데 대한 인사와 함께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아프리카 개발 컨센서스'라며 감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신흥경제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잘 말해주는 장면이었다.

G20 정상회의의 전 과정을 체험하며 나는 중견 국가인 대한민국의 다양한 글로벌 리더십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내용과 행사 양 측면에서 '성공작'이었다는 G20, 특히 주요 G7 대표단의 사후평가는 이런 생각을 재확인해 줬다.